

감사원, KBS 鄭사장 해임요구

이사회 수용땀 곧바로 해임 절차

“개인비리 없지만 부실 경영 책임져야” 검찰 수사에도 영향 강제구인될 수도

감사원이 5일 특별감사를 통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KBS 이사장에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에 근거,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원은 KBS 감사결과,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정 사

장의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KBS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등에 큰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은 정부·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 사장 퇴진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S 이사회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원은 KBS 감사결과,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정 사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재심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감사원은 재심 청구권자에 대해 ‘KBS 이사장’만 해당한다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 결의의 의결할 경우 이후 수순은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 사장 해임 절차를 밟느냐로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50조를 들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KBS 사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장이나 검찰총장처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법정신으로 봤을 때 임의로 해임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요구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을 거부해온 정 사장에 대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 사장의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北 집체공연 ‘2008년판 아리랑’ 4일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집체극 ‘아리랑’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첫 공연을 한 이후 2005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네 번째 막을 올린 ‘2008년판 아리랑’은 내용 면에서 ‘영변의 비탄처녀’가 새로 창작되는 등 많은 장면들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두만강·압록강 섬도 분쟁지역 분류 ‘오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최근 원상회복시켰던 미국 국무부가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들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곳곳에 표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 주도로 작년에 지명위원회(BGN)의 승인을 받은 ‘주권 미지정’ 코드 분류 제안서에 따르면 세계 31곳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한국의 경우 독도와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 등 3곳이 분쟁지역인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외교부는 또 “BGN의 일부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문서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특정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이라며 “전문적으로 오류를 재검토해 나겠다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中 신장지역 폭탄테러는 위구르족 청년 2명 소행”

2008 베이징올림픽을 나올 앞두고 중국 북서부 신장(新疆) 지역에서 4일 발생한 폭탄테러는 위구르족 청년 2명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무장경찰 16명을 숨지게 한 사건은 올해 28살과 33살의 위구르족 청년이 저지른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경찰은 신장의 무장 분리독립운동 단체가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어 이들이 이 단체의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몰고 온 트럭에서 10개의 사제 폭탄과 권총 1정, 칼 4자루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한나라·선진당 “감사 결과 수용하라” 민주·민노당 “정권 방송장악 음모”

여야 정치권은 5일 감사원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결정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감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결정은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한 시작이므로 환영한다”면서 “정 사장은 공영방송 KBS를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정 사장은 검찰 조사에 정당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KBS 사장실은 법을 위해 도파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하는 자리”라며 정 사장의 검찰 출두 및 관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제6경조위원장도 “정 사장은 언론탄압 운운하며 정권에 대한 투쟁인양 하지 말고 개인적 비리와 위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의 옥동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정 사장이 KBS 사장으로서 취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

했다”며 “정 사장은 뒤늦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언론장악이 우려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YTN에 이어 공영방송 KBS를 이명박 정부가 사유화하겠다는 것에 다름없고, 청와대 시나리오에 따라 감사원과 다수 여당 추천이사로 구성된 KBS 이사회가 합작으로 만든 ‘공영방송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일 감사원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회가 정 사장을 해임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방송언론의 독립

성, 중립성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고 오후에는 KBS 앞에서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에 대한 규탄대회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감사원이 중립성을 잃고 이명박 정권의 흥위병으로 전락한 것을 보여준다”면서 “백일하에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음험한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국민이 KBS의 공공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줄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2008년 공무원시험 심한 응시편견개선 패지로 공무원시험경쟁! 귀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에서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79급공무원시험[국가직/지방직]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knbcg.com

7급이론반	7급실용반	반려견개반	9급이론특수반	9급문제풀이	담당강사명	소방기술반	농업반
-------	-------	-------	---------	--------	-------	-------	-----

수강자 전원 합격은 물론이고 합격 후에도 100% 합격률에 합격하면 100% 장학금 지급

www.knbcg.com

합격박람회 8월1일

한빛고시학원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미도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창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NIE 국제약품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함유

아연의 보급